

낙농산업, 미래 희망산업으로의 청신호



서극수
낙농진흥회 전무



신년 초에 희망과 꿈을 안고 시작한 한해를 연 말이 되어서 돌이켜 볼 때 마다 항상 아쉬움과 후회가 앞서기 마련이다. 올해 역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년과 달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낙농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는 생각에 2007년의 새해 아침이 더욱 기다려지고 있다.

의무자조금 시행, 깨끗한 목장 만들기 운동 전개, IDF(국제낙농연맹) 회원가입, 낙농자조금에 의한 국민계도성 종합홍보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학교우유급식의 돌파구 마련 등 우수소비촉진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원유품질 개선, 로봇 착유기 등장 등은 낙농산업을 미래의 희망산업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청신호(靑信號)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출산을 저하에 따른 우유 소비량 둔화, 2년째 표류하고 있는 낙농산업발전 대책, 한미FTA를 비롯한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기조의 확산 등은 우리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적신호

(赤信號)가 되고 있다.

새해에는 우리의 앞날을 밝혀줄 수 있도록 지금의 청신호를 더욱 밝게 빛나게 하는 한편, 낙농산업 종사자 모두의 슬기를 한데 모아 적신호를 청신호로 바꾸어 나가는 지혜를 발휘 한다면 낙농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으로 확신한다.

낙농자조금의 의무자조금시대 개막

올 한해 우리 낙농산업분야에 가장 큰 성과라면 지난 '99년 시작한 낙농자조금사업이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되면서 우수소비홍보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 것이다. 의무자조금시대의 개막은 출산을 저하, 대체음료 범람 등으로 인해 우수소비량의 감소현상이 지속되어 어느 때보다 소비홍보사업이 중요한 시기에 이 땅의 낙농가 모두가 우수소비확대에 한마음 한 뜻이 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유업체의 제품광고는 단기간에 자사 제품을 소비자에게 인지도 상승을 꾀하는 판매촉진 광고라 할 수 있다.

반면 자조금에 의한 소비홍보사업은 인류역사상 가장 완전식품에 가까운 우유의 식품영양학적 가치를 국민계도 차원에서 홍보하고 교육하는 사업으로서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서서히 소비자의 우유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우유소비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소비촉진 홍보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홍보방식은 언뜻 보아서 큰 차이가 없는 듯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굳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물가에서 송농 찾는다'는 옛 속담과 같이 자칫 이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인 낙농가들이 자조금 사업 성과에 대한 성급한 기대를 우려해서이다. 때문에 자조금사업에 대한 효과를 예단하거나 자조금사업의 진로를 어렵게 만드는 여론형성 보다는 우리 우유시장은 낙농가 스스로가 지켜나간다는 대명제에 근거하여 8천여 낙농가 모두가 한 장의 벽돌이 되어 우유소비확대라는 탑을 쌓아 나가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깨끗한 목장 만들기는 낙농산업의 미래를 보장 받는 생존전략

두 번째로는 깨끗한 목장 만들기 운동의 전개이다. 지난 해 생산자의 의식전환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클린 팜' 운동과 '깨끗한 목장 만들기' 운동이 이제 첫 번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 캠페인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몇몇 목장만의 1회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 다행스럽게도 낙농육우협회는 이 운동의 시작과 때를 같이하여 '목장환경개선 표준매뉴얼'을 제작하여 목장 구성요소별로 환경개선과 관리방법, 그리고 자가 목장의 평가기준 등 낙농가들이 단계별로 실천할 수

있도록 목장관리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하여 목장별 여건에 맞게 적용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우유의 특성상 소비자들은 '깨끗한 목장에서 깨끗하고 위생적인 우유가 생산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각 유업체에서 원유의 최고 등급이라며 1A우유에 대한 마케팅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그만큼 우리 소비자들의 기호가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고 있고 그들의 의식수준도 과거에 비할 바가 안될 만큼 성숙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유품질만 1A등급이 아니라 목장의 시설이나 환경 등 생산현장의 여건도 이에 걸맞는 1A등급이 되어야만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깨끗한 목장'을 외면한다면 소비자들은 우유를 외면하게 될 것이고, 낙농산업이 설 땅은 점차 좁아져서 결국 우리의 생존권까지 위협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깨끗한 목장 만들기' 운동은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으로서 21세기 변화된 환경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안이고 우리 낙농산업의 미래를 보장받는 생존전략일 것이다.

IDF가입은 한국낙농이 국제무대로 향하는 첫걸음

세 번째 성과로 지난 10월 한국이 IDF(국제낙농연맹)의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을 들 수 있다. 준회원자격의 IDF 가입은 비록 낙농가들에게는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다소 적을지 모르지만 정부, 학계, 유업체, 낙농관련 산업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숙원사업이 해결된 쾌거로 인식되고 있다. 우물 안 개구리가 우물을 박차고 넓은 세상 밖으로 뛰어 나온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작금의 우리는 수입개방으로 싫든 좋든 국경 넘어 낙농가들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고려할 때 IDF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 낙농분야의 다양한 국제교류와 선진 낙농정보의 활용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회원국 자격으로 IDF의 각종 학술행사와 낙농관련 기준 제·개정 과정에 참여하여 우리 낙농업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DF 회원국자격 취득은 한국낙농이 국제무대로 향한 첫 걸음인 만큼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 IDF정회원 자격 취득, 낙농경영·정책·마케팅·위생안전·식품표준·환경 등 주요 낙농분야별로 활동할 분과위원회 구성 등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 간에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선진낙농기술과 정보를 국내 낙농발전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제낙농무대에서 우리 낙농산업의 입장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교우유급식은 국민건강증진차원에서 국가가 나서야 할 때

네 번째의 성과로는 우유소비의 가장 큰 기반이 될 수 있는 학교우유급식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05년도 초등학교 우유급식률은 '04년에 비해 4.5%나 감소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더욱이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의 우유급식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06년 낙농진흥회의 소비촉진사업의 중심을 학교우유급식 부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결과 중·고등학교 우유급식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유관기관·유업계가 '07년부터 학교우유급식에 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건국 이후 최초로 전국의 시·도 및 교육청 우유급식 담당 공무원 합동 연찬회를 개최하는 한편, 교육인적자원부 우유급식 담당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유급식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서방 선진국에서는 1950년대에 이미 학교우유급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가차원에서 자라는 청소년세대에 대한 균형 잡힌 영양보급 방안의 일환으로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일본 또한 1954년에 학교급식법에 의해 우유급식을 시작한 이래 중학교 3학년 학생의 평균 신장이 2004년도 기준으로 남학생은 18cm, 여학생의 경우 11cm가 성장하였다고 한다. 우리도 이제 학교우유급식을 학교와 학부모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체위향상과 자라는 세대의 고른 영양보급차원에서 국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본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유급식사업을 학교와 교육당국, 나아가 당사자인 학생들의 자의적 의사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그들 스스로가 우유급식의 필요성과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대부분 OECD 국가들과 같이 우유급식을 유제품 소비확대가 아닌 국민건강증진 개념으로 접근하는 인식전환과 더불어 우유급식 확대를 위한 범정부적인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정책 측면에서는, 금년 9월 '가축분뇨의처리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은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더해가는 환경보호와 축산업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해야하는 우리 낙농업계의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그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어온 축산분뇨를 경종농업과 연계한 재활용자원으로 활용하기위한 기본 틀을 갖추게 됨에 따라, 앞으로 남은 과제는 환경친화적인 낙농경영에 대한 각급 현장에서의 인식전환과 실효성 있는 자원화 노력이라 하겠다.

앞서 언급한 부분 외에도 낙농육우협회와 축산연구소간에 '젖소사료급여진단 프로그램 및 젖소 비육 사양관리 프로그램'의 무상기술이전 협약을 통한 과학낙농경영의 새로운 경영모델의 제시, 육우산업 경쟁력 제고 노력 등 올 한 해 동안 낙농산업은 예년에 비해 많은 성과를 산출해 내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낙농산업의 밑거름이 되어 내년에 탐스러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

낙농역사속의 잃어버린 10년을 반복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굳이 지적하자면 낙농산업 발전종합대책의 표류를 들 수 있다. 한미 FTA를 비롯해서 주변의 여러 국가들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기조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의 우리 상황이 그리 낙담하지 못한 실정임이 분명함에도 낙농대책 시행에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음은 지금의 상황에 안주한 채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 자유무역기조에 힘입은 수입 개방 압력은 우리에게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허용하지 않는다. 1997년 낙농진흥법이 개정되기까지 10년 동안 지루한 논쟁을 벌인 탓에 낙농역사 속에 '잃어버린 10년'이 되면서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UR 타결과 WTO출범을 맞이해야만 했다. 낙농대책 시행에 또 다시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면 우리의 낙농산업은 낙농선진국을 향해 뛰어 보기는커녕, 일어설 힘조차 잃어버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 나라 낙농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은 이 산업을 안정되고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다듬어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명 의식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의 그들은 이 나라 낙농산업을 그들의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가꾸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낙농과 유업이 상생(相生)하는 지혜를 찾는다면 블루오션 창조 가능

21세기는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의 변화과정이 단 몇 년 만에 변화가 가능한 시대이다. 로봇착유기 도입 등에서 보듯이 목장의 사양기술이나 시설, 그리고 유가공업계의 신제품 개발 능력 등 낙농산업의 하드웨어(hard ware)적인 인프라는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낙농산업계의 사고는 아직도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이룰 말할 수 없다. 흔히 낙농가와 유업계는 두발 자전거의 바퀴에 비유하곤 한다. 어느 한 쪽이 없어도 존재의 의미가 상실되는 관계이다. 흔히들 말하는 상생이 무엇보다 절실한 산업이 낙농산업일 것이다.

수입개방 압력이나 소비량의 감소 등 우리 낙농산업이 '레드오션'으로 인식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서 우리의 소비자, 그것도 우리의 우유를 마시지 않는 소비계층을 우리의 소비자로 전환한다면 우리 낙농산업도 능히 '블루오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우리 낙농산업에 불어 닥치는 어려움을 타개해나가는 노력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해에는 눈앞의 이익이나 이기적 사고에 의해 판단하기 보다는 낙농산업의 먼 장래를 내다보며 판단하는 지혜와 상생의 기지가 발휘되어 보다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버리는 결단과 용기를 기대한다. ☺